

2019년 7월 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유럽, 부진한 경제지표로 경기 부양기대 확산 트럼프의 환율조작 이슈 언급으로 상승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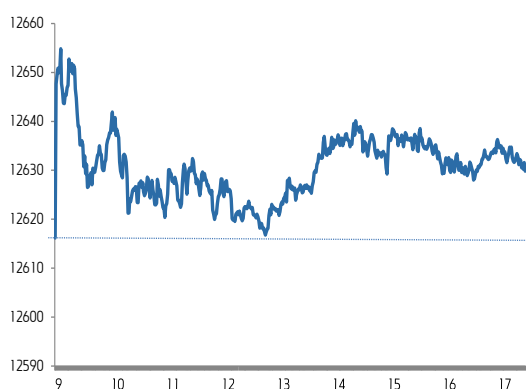
유럽 증시 상승 요인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로 경기 부양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한편, 전일 EU가 이탈리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된 이후 정치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이탈리아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어짐. 다만, 트럼프가 유럽과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무역분쟁 이슈가 이어지며 상승폭은 제한(독일 +0.11%, 영국 -0.08%, 프랑스 +0.03%, 이탈리아 +0.98%, 유로스톡스 50 +0.10%)

5월 유로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특히 음식료가 전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섬유, 의류 등도 전월 대비 0.6% 둔화. 반면, 컴퓨터 장비는 전월 대비 0.2% 성장했으며, 제약 및 의약품 또한 전월 대비 0.3% 증가. 결국 유로존 소비 둔화는 음식료 및 의류 등이 주도한 반면, IT 및 제약의 경우는 증가한 점이 특징. 한편, 국가별로 보면 독일(mom -0.6%)은 물론 크로아티아(mom -4.4%)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과 스웨덴(mom -2.8%) 등 북유럽도 부진. 반면, 프랑스(mom +0.4%), 스페인(mom +1.1%) 등은 성장.

전일 미 증시가 부진한 경제지표를 빌미로 연준의 금리인하 이슈가 부각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수면아래 가라앉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하 이슈가 부각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가 발표되어야 금리인하를 빌미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경향. 한편, 라가르드 IMF 총재가 드러기를 이을 ECB 총재로 지명 되었고, 트럼프는 쉘튼과 윌러를 연준이사로 지명하자 시장참여자들은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유로존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자 경기부양 기대를 높였다는 판단

독일 닥스지수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08.73	+0.61	홍콩恒生	28,795.77	-0.21
KOSDAQ	691.27	-0.26	영국	7,603.58	-0.08
DOW	26,966.00	휴장	독일	12,629.90	+0.11
NASDAQ	8,170.23	휴장	프랑스	5,620.73	+0.03
S&P 500	2,995.82	휴장	스페인	9,401.00	+0.07
상하이종합	3,005.25	-0.33	그리스	892.94	+0.18
일본	21,702.45	+0.30	이탈리아	22,120.70	+0.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

삼성전자 실적 개선 기대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1 계약)에도 불구하고 0.30pt 상승한 275.8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8.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증시는 부진한 소매판매가 발표되자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온건한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기 부양 기대속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 때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으나, 중국 상무부가 “환율을 무역분쟁의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히는 등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이 전일 미국산 돼지고기는 물론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쌀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우호적이다. 이렇듯 무역분쟁 완화는 물론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 증시 반등 기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6 조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으나, 당사는 6.2 조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3 분기 영업이익을 7.7 조원으로 전망하는 등 분기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KOSPI 영업이익 상향 조정 기대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증시는 이러한 기업이익 개선과 글로벌 경기 부양기대, 무역분쟁 완화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소매판매 부진

5 월 유로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1%)는 물론 시장 전망치(mom +0.4%)를 하회한 수치다. 전년 대비로도 1.3%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 부진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식품과 의류 등의 부진이 특징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드라이빙시즌 가솔린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특히 미 에너지 정보청이 미국의 정제소가 전년 대비 2% 적게 원유를 처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가솔린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졌다. 여기에 유로존의 소매판매 부진도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미국 휴장으로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소매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EU 지도부가 완만하게 선출 된 점, EU 가 이탈리아에 대해 벌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시간외로 하락 했다. 유로존의 소매판매 둔화에 따른 ECB 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줬다. 한편, 독일 분트채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등 대체로 글로벌 각국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금은 시간 외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유럽 경기 부양 기대 영향으로 상승 했다. 다만, 아연 등 일부 품목은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6% 하락 했으나, 철근은 0.2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7.34	휴장		Dollar Index	96.730	-0.04	+0.56
브렌트유	63.30	-0.81	-3.61	EUR/USD	1.1285	+0.06	-0.74
금	1,420.90	휴장		USD/JPY	107.81	0.00	+0.02
은	15.336	휴장		GBP/USD	1.2579	+0.04	-0.75
알루미늄	1,807.00	+0.95	+0.95	USD/CHF	0.985	-0.18	+0.86
전기동	5,920.00	+0.03	-1.15	AUD/USD	0.7023	-0.09	+0.20
아연	2,425.00	-0.98	-2.02	USD/CAD	1.3053	-0.04	-0.32
옥수수	441.25	휴장		USD/BRL	3.8012	-0.69	-0.50
밀	514.00	휴장		USD/CNH	6.8745	-0.15	+0.05
대두	908.75	휴장		USD/KRW	1168.60	-0.23	+0.91
커피	113.65	휴장		USD/KRW NDF1M	1168.30	-0.14	+1.0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950	휴장		스페인	0.245	+3.50	-14.70
한국	1.520	-0.20	-10.20	포르투갈	0.329	+4.00	-14.90
일본	-0.155	-0.50	-1.40	그리스	2.043	+0.50	-40.70
독일	-0.399	-1.40	-7.90	이탈리아	1.673	+9.10	-46.00